

정율성·판다로 짝 막힌 한중관계 회복 꾀한다

광주시 대표단, 중국 방문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한중 공동의 항일 역사 자산인 안중근 의사와 정율성 선생, 판다 유치를 매개로 지난 정권에서 막혀버린 한중 관계의 회복을 꾀하는 데 주력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 여사와 손자 검봉 씨를 정 여자 자택에서 만나 정율성의 생애와 음악 활동, 한중 문화교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소제 여사는 한중우호협회 이사이자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회를 통해 한중문화예술 교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자인 검봉 씨는 정율성음악기행단 문화기획가로 한중 청년소 교류와 정율성 기념사업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정소제 여사는 △정율성 선생이 작곡한 '3·1행진곡' 악보 복제본 △선생의 생애와 창작활동 흐름이 정리된 '정율성 연보' 책자를 광주시에 기증했다. 광주시는 한국에서 개최했던 정율성음악

딸 정소제·손자 검봉씨 만나 문화교류 협의 베이징 동물원 판다관 시찰...관리체계 확인

제 영상(DVD)과 학술포럼 자료집 등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정소제 여사는 "아버지는 생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셨다"며 "광주에서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전달 해주셔서 더없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삶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깊이 감사드리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많은 중국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광주를 방문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여사는 부친에 대해 "언제나 자유와 독립을 염원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운동에 매진하셨다"고 회고하며 "(아버지가) 항일을 위해 중국에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역사가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율성 선생의 유족을 건강한 모습으로 중국 현지에서 직접 뵙게

돼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정율성 선생은 광주 출신의 훌륭한 음악가이자 음악을 통해 시대와 사람을 연결한 인물로, 중국에서는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받으며 한중 양국을 잇는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정율성 선생의 고향으로서 선생의 음악과 정신이 한중 우호·교류의 자산으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며 "정율성 선생의 귀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까운 시일 안에 광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앞서 중국 하얼빈시 다오리구에 위치한 '정율성기념관'과 '안중근기념관'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하얼빈시 정부에서는 왕허성 시장을 만나 문화·관광 자원과 역사문화 콘텐츠, 국제교류 등에 대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국 베이징동물원 내 판다관을 방문해 사육 환경과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 여사와 손자 검봉 씨를 정 여자 자택에서 만나 정율성의 생애와 음악 활동, 한중 문화교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유지될 경우 사육 장소인 우지동물원에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1906년 설립된 베이징동물원은 중국 최초의 현대식 동물원으로 400종, 5000여 마리의 희귀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판다관은 사육·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10마리가 보호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번 중국 시찰을 통해 판다 사육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 관

리 체계를 확인했다"며 "판다를 활용한 생태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자치구, 통합특별시 출범 맞춤형 행정체계 구상

광주 5개 자치구가 다음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협의의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1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군협의회 출범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어 구청장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를 각각 운영하며 현안 대응 방안과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로는 시·군·구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게 돼 27명의 단체장의 의견을 한데 모을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러한 구상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22개 시·군과 협의회 신설...명칭 변경·시 승격 모색

"출범 시 특별시장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건의 등 계획"

시군군협의회가 출범하더라도 5개 자치구가 참여했던 구청장협의회는 그대로 유지하며 자치구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구청장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민선 8기 마지막 구청장협의회에서 시군군협의회 출범, 기존 구청장협의회 운영 방향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구 명칭 변경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동·서·남·북구는 방위 중심 명칭이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명칭 변경을 함께 추진해왔다.

내부적으로 새로운 명칭에 대한 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명칭은 없고, 추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공공시설 간판 변경, 행정 시스템 정비 등을 준비해야만 해 향후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머지 4개 구와 다르게 고유 명칭을 사용하는 광산구의 경우 구에서 시(市)로 승격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아 재정 여건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왔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역단체인 광주시를 통해 재원을 배분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구청장들은 시군구의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산구는 명칭 변경 대신 시 승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들도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군군협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특별시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거나 논의 중인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추경 등 심사

김태균 의장 "통합의회,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길"

전남도의회는 제12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399회 임시회를 10일 개최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남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첫날인 이날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399회 임시회는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전환점"이

라며 "그동안 도민의 성원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후반의 의회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대응,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민생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역신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임팩 활동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국 최초 청년특화구역 조성 조례 제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 마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김태균 의장은 "7월 1일 전남과 광주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공동체로 출범하게 된다"며 "전남도의회가 축적해 온 의정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